



ORCHEM

ORChestra

2026 | Vol.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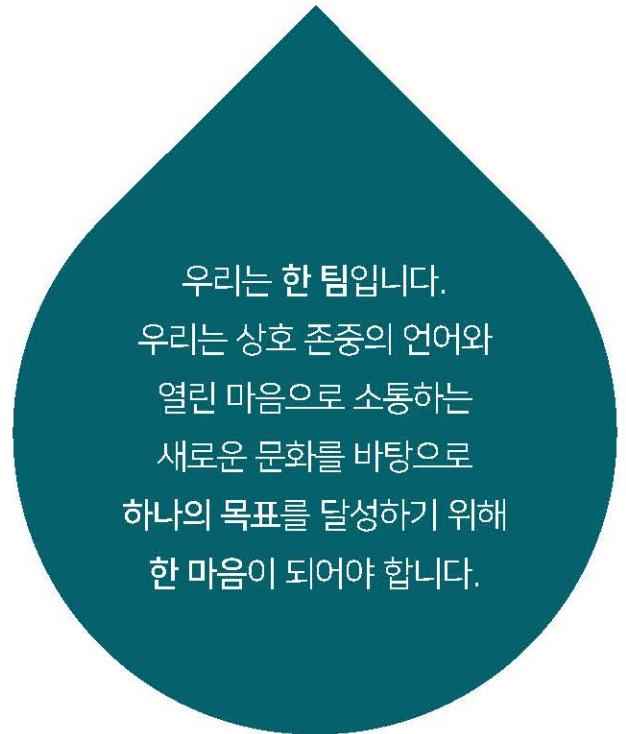
www.orchem.com



ORChestra



One Team One Dream One Heart



발 행 처 (주)오알켐

발 행 일 2026년 1월 2일 (통권 제 19호)

편집/디자인 김정아

기 자 단 ORCHEM(본사) 김시연, 최수진

ORCHEM(중국법인) 莫秋玉 Mo qiu yu

ORCHEM(베트남법인) Phùng Thị Thanh Nhàn

ORC Solution 박승영, 김준용

대 표 전 화 031-488-0600

홈 페 이 지 www.orchem.com

CONTENTS

01

We are ORCHEM

- 03 … 공채 12기 WORK SHOP
- 05 … ORCHEM VN 기술팀을 소개합니다
- 09 … 신규입사자 Interview

02

Inside ORCHEM

- 15 … 2025 노사문화대상 장관상 수상
- 18 … ORCHEM VN 26년도 사업계획 수립
- 19 … HKPCA Show 2025
- 21 … 중국법인 기술영업팀의 본사 방문 교육

03

ORCHEM-NESS

- 23 … 2025 4분기 타운홀 미팅
- 25 … ORCHEM VN 인재 육성 프로그램
- 27 … 절강법인 식당/카페 리뉴얼 오픈
- 29 … 2026 오알켐인 새해 목표
- 31 … 풋살 동호회 소개
- 33 … 2026 트렌드 코리아 키워드 10가지
- 35 … 베트남 출장시 꼭 먹어야 하는 과일
- 37 … ORC Solution 취미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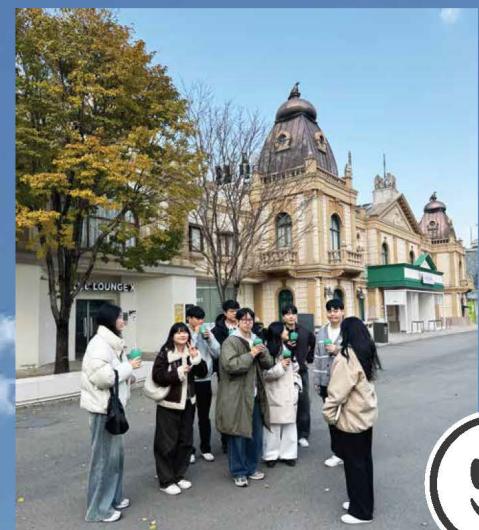
[DIY 뮤니언처]

04

- 38 … O!News
- 39 … O!Quiz

공채 12기 WORK SHOP

공채



이번 공채 12기 워크샵은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멘토링과 자기계발 시간을 통해 회사 생활에 필요한
실직적인 조언과 유용한 팁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에버랜드로 출발!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
는데요, 덕분에 동기 간의 유대감이 한층 더 깊어지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숙소에서
진행된 바베큐 파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12기는 이번 워크샵에서 얻은 활력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오알켐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동기들과 함께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준히 성장하는 12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팀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도전하며 성장해 갑니다.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소통하고 협력합니다.
한 개인의 특출한 역량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우리의 역량으로 완벽한 성과를 이뤄냅니다.

ORCHEM VN

기술팀을 소개합니다

인터뷰/글. 사내 기자단 Phùng Thị Thanh Nhàn 사원 (베트남법인)

기술팀 Kieu Tri Nam 팀장

Interview

Q.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법인 기술팀(T/S)입니다. 2019년 2명으로 출발한 기술팀은 현재 총 8명으로(주재원 2명, 현지 직원 6명)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저희 팀의 핵심 업무는 신규 라인 설치 지원, 고객사 생산 현장 안정화, 그리고 고객의 품질·생산 이슈 해결입니다. 주요 고객 6 곳을 포함, 현재 15개 고객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고객 현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팀원들은 정기적으로 근무지를 로테이션하고 있습니다. 기술팀에겐 “진짜 오피스는 고객 현장”이라는 말이 따라 붙는데요, 그렇다 보니 내부에서는 종종 이런 농담도 나오곤 합니다. “T/S팀이 회사에 많이 보이면... 그 달 매출은 좀 불안한 거다!”

Q. 25년도 팀의 성과들을 돌아보자면?

지난해, 기술팀은 고객사 현장 중심의 대응에 집중하며 다음과 같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 Interflex - 화학동 1개 라인 Set up 완료
- Seojin - 기동 3개 라인 및 Oxide 1개 라인 구축, 안정화 지원
- BH Flex Separation - 이슈에 대한 신속·적극 대응으로 높은 고객 만족도 확보
- 사내 및 본사 교육, 고객 현장 실전 등으로 문제 해결 및 팀 협업 역량 향상
- 2024년 연말 최우수 Team 수상, 2025년 3분기 개인 우수사원 1명 수상

• • • ORCHEM VN 기술팀을 소개합니다

Q. 팀만의 고충이 있다면?

T/S팀은 고객사 공장에서 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고객사마다 환경과 라인 운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적응이 필수입니다. 이로 인해 때때로 업무 피로와 현장 압박을 느끼기도 하고, 특히 라인 Set up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인력 배치 및 운영 난이도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또한, 잦은 현장 이동이 있는 업무 특성 때문에 채용이 쉽지 않다는 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

Q. 26년 기술팀 목표!

2026년 T/S팀은 현장 품질 향상과 고객 대응 역량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고객 대응

- VOC 100% 해결
- 총 13개 라인 Set up 프로젝트 완료 (화학동, Via fill, Black hole 공정)
- 기술 인력 4명 추가 채용으로 총 12인 팀 체제 구축

팀 역량 강화

- 고객 현장 기준 및 운영 트렌드 기술 정보 수집 강화
- 교육 및 매뉴얼 문서 표준화, 현장 적용 능력 향상
- 문제 분석·이슈 해결 역량을 개인 및 팀 단위로 향상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팀은 지속적인 학습으로 개인, 팀 역량을 강화할 것이며, 본사의 안정적인 지원과 협업을 동력 삼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 신규 입사자 Interview



기술혁신팀
김진년 연구원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12일에 입사해 현재는 입사 7개월 차인 기술혁신팀 김진년입니다. 저는 여러 고객사의 기술적인 대응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주로 고객사의 요청에 따른 Lab test, 신뢰성 검증, 정기적 분석을 하고 고객사 현장에서는 오알케م 약품 적용, 현장 모니터링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첫 출근 날 기분 기억하시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첫 출근 날 기대가 됐으면서도 많이 떨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출근을 하려면 버스를 30분 타고 회사까지 20분 정도 걸어야 했는데, 그동안 긴장감을 최대한 낮추려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제 자차를 운전하게 되어서 걸어서 출근할 일이 없어 가끔은 그 20분이 생각납니다.

Q. 오알케م 입사 후 제일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좋았던 점이 여러 개 있지만 가장 큰 점은 바로 사내 카페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모닝 커피가 필수 루틴인 저에게 회사 안에서 맛있는 커피를 바로 즐길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Q. 요즘 빠져 있는 취미나 관심사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집에서 편한 자세로 밀린 드라마나 영화, OTT 등을 보는 게 요즘 저의 취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환승연애 진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영상들에 폭 빠져서 웃고 즐기다 보면 한주의 피로가 다 해소되는 느낌이 듭니다.

Q. 회사에 적응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분은 누구인가요?

팀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누구 한 명이 아니라 팀 전체가 도와주는 느낌이 가장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는 거에 대해 폭넓은 질문을 할 때에도 하나하나 다 대답해 주시고, 요즘 괜찮냐고 할 만하냐고 계속 물어봐 주시고, 장난도 서로 치는 재미있지만, 또 든든한 기술팀원분들 덕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나는 팀에서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나요?

지금 팀에서 저의 역할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성장형 막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점점 자라고 자라 저도 나중에 들어올 기술팀 후배에게 제가 경험한 것이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전달해 줄 수 있는 멋진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기술팀의 미래를 만들어갈 든든한 일원이 되겠습니다.

• • • 신규 입사자 Interview



기술혁신팀
서강돈 연구원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5월에 입사하여 현재 기술혁신팀에서 근무 중인 서강돈이라고 합니다.

Q. 첫 출근 날 기억하시나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입사하고 교육 기간 때 보는 PCB 시험에서 저 포함 같이 입사한 5명이 전부 떨어져서 너무 민망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재시험 끝에 모두 통과했지만, 첫인상이 이상하게 남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Q. 오알켐 입사 후 제일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새로운 환경이 낯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회사 분위기가 활기 넘치고 젊은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또한 기술 팀원분들이 편하게 대해주고 잘 알려주셔서 적응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복지 포인트로 사내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정말 좋았습니다.

Q. 요즘 빠져있는 취미나 관심사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대략 두 달 정도 된 거 같은데 주마다 1회씩 드럼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배워보고 싶었는데 재미있게 배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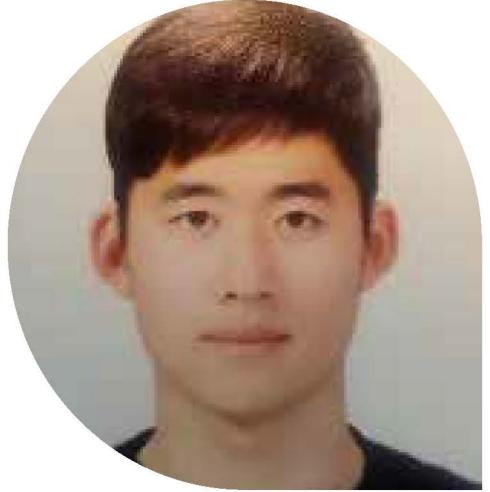
Q. 회사에 적응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분은 누구인가요?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기술팀원분들 모두가 정말로 잘 챙겨 주셔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수습 기간이 끝나고 업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을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결국 제가 회사와 기술팀에 적응할 수 있었던 건 지성배 부장님과 기술팀원분들 그리고 팀 전체의 분위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 나는 팀에서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나요?

팀에 도움이 되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일하면 편하고 맡긴 일은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 • 신규 입사자 Interview



• • •

기술혁신팀
심장원 연구원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술혁신팀 심장원 사원입니다. 현장 라인 셋업 및 고객사 대응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Q. 첫 출근 날 기억하시나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약간의 긴장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오알켐 입사 후 제일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복지 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내 카페, 여러 가지 시스템들, 식당, 제주도 렌터카 등등 웬만한 증견 기업 저리 가라(?) 하는 복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회사 동료들이 너무 착해서 좋아요...

Q. 요즘 빠져있는 취미나 관심사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PC 게임은 늘 좋아하고 요즘은 영상 편집, 농구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Q. 회사에 적응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분은 누구인가요?

감사하게도 많은 기술혁신팀 선배님들이 다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한 명을 콕 집어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굳이 꼽자면 김정호 차장님, 임창현 사원님이 항상 업무나 적응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신 것 같습니다.

Q. 나는 팀에서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나요?

아직까진 경험이나 지식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 배움이 많이 필요하지만, 2026년 내에는 1인분 이상의 봇을 하는 구성원이 꼭 될 겁니다!

우리는 고객사, 지역 사회, 임직원들에게 사랑받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임직원의 행복에서 첫 걸음을 시작해 한국 매출 1위, 총매출 2000억원, 글로벌 top3에 도달하며 모두가 사랑하는 회사로 성장할 것입니다.

⋮
⋮
⋮

2025 노사문화대상 장관상 수상

오알켐이 2025년 고용노동부 주관 노사문화대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단기간의 성과가 아닌, 2012년부터 13년간 이어져 온 ‘사람 중심 경영’과 ‘노사 상생 문화’가 축적된 결과입니다. 오알켐은 정규직 중심 고용 안정, 참여형 소통 구조 구축,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확대 등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영 환경과 기업의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오알켐의 노사문화는 공감·참여·합의를 통해 완성됐습니다. 오알켐은 2012년부터 노사 상생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정규직 중심의 안정적인 고용 구조를 구축해 왔습니다. ‘비정규직 0명’ 원칙에 따라 최근에는 용역업체 직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선택적 근로 시간제, 시차 출근제 등을 도입해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더욱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태운홀 미팅, 주니어 보드, 익명 게시판 운영 등 참여형 소통 채널을 확대·운영하며, 경영 현안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하는 신뢰 기반의 의사결정을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조직 전반에 공감과 신뢰 문화를 확산하여 오알켐만의 노사 상생 문화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 ● ... 2025 노사문화대상 '장관상' 수상

... ● ... ORCHEM VN
2026 사업계획 수립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의 경영을 일관되게 실행해 온 결과로 지난 10년간 오알켐은 연 매출 2.4배 성장, 대졸 신입 초임 임금 연평균 4% 이상 인상, 복지제도 43개로 대폭 확대(기존 17개) 등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최근 3년간 21억 원을 사내 시설(사내 카페, 휴게 공간 등)에 투자하여 구성원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랑받는 회사, 출근하고 싶은 회사'라는 오알켐의 '사람 중심'의 경영 철학은 오알켐 성장 과정의 중요한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람과 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구성원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연말은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다음 해의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ORCHEM VN는 10월 전사 관리급 담당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사업계획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각 부서가 2025년의 주요 성과와 미흡한 부분을 공유하고, 본사의 중장기 전략을 기반으로 2026년 핵심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각 부서는 주재원과의 개별 회의를 통해 부서별 사업전략을 구체화하고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팀장들은 회사의 중장기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였고, 각 부서가 실현 가능한 목표를 함께 설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 HKPCA Show 2025

오알켐이 12월 3~5일 심천 바오안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HKPCA Show 2025'에 참가했습니다. HKPCA Show는 2024년도 기준 75,988명의 관람객, 609개사 기업이 참가한 글로벌 전자회로 산업 전시회입니다. 장비·재료·신소재·자동화·스마트제조·첨단 패키징 및 테스트 기술 등 다양한 분야가 전시되었는데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오알켐의 핵심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이며, 기업의 가치를 해외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유리 기판(TGV) 및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고밀도·고속 PCB, AI 기반 스마트 제조·자동화 솔루션이 집중적으로 전시되어, '기술+혁신+미래 산업 대응'이라는 산업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 중국법인 기술영업팀의 본사 방문 교육 이야기

글/사진. 사내 기자단 莫秋玉 Mo qiu yu 사원 (중국법인)



핵심 업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중국법인 庞广磊 총경리, 何润鹏 기술영업부 총괄, 吴建刚, 谭阳, 金光虎, 董小雷이 한국 본사를 방문해 이틀간 심도 있는 교류와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1일차

10월 14일 오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본사 기술팀의 안내로 한국 생산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수평 PTH 생산라인과 VCP 훌 생산 라인을 직접 참관하며 본사의 첨단 생산 설비, 엄격한 공정 프로세스, 탁월한 현장 관리 수준을 보다 직관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본사 방문의 주된 목적인 본사 연구 개발 및 기술 관련 전문가들과 주제별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서 양측은 중국 법인이 현재 주목하고 있는 'Fastprint 백라이트 블링'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기술 분석과 대책을 논의 했으며, TTM의 현재 생산 현황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또한 본사 도금 약품 생산 현황 및 핵심 공정 파라미터에 대해 자문하여, 향후 생산 공정 최적화와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탄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일차

10월 15일, 교육 범위를 확장하여, 본사 기술팀의 주도 하에 한국 주요 고객사를 방문했습니다. 고객사 생산 현장에서 수평 PTH 및 도금 공정이 실제 고객사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팀원들이 공정 흐름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흐름을 체감하게 하여, 향후 고객 서비스를 향상하고 사업 방향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일에 기반이 되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성공적인 마무리, 만선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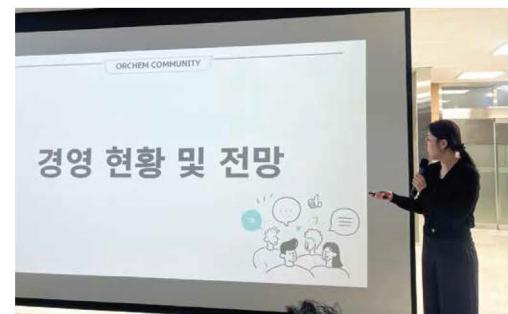
이번 한국 본사 방문은 짧았지만 의미는 깊었습니다. 본사와 절강 법인 간의 긴밀한 유대 형성과 지식 공유를 통해 기술적 도약을 준비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팀원들은 이번 교류를 통해 시야를 넓히고 기술적 의문들을 해결했습니다. 본사 동료들과의 유대감도 깊이 쌓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번 본사 방문을 통해 배운 것을 강력한 동력으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고 절강 법인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꿈을 공유한 우리는 일에 대한 가치와 이유를 이해합니다.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며 능동적인 태도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일을 즐길 줄 아는 오알켐인입니다.

-
-
-
-

4분기 타운홀 미팅

오알켐 4분기 타운홀 미팅이 10월 14일 본사 4층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COO 본부의 이혜지 상무님께서 지난 3분기 경영 현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구요, 임직원 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더하셨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사항으로, 아주 귀가 쫑긋했어요!! 내년을 기대해 봐도 되겠죠?!?!



오알켐은 건의 사항이나 궁금증,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익명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의견 수렴을 통해 신뢰 기반의 의사결정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AI 업무 활용 방안, 기타 안전 관련 제안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임직원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 덕분에 좋은 주제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다름없이 사장님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더 밝은 미래로 내딛고 있는 지금, 올해엔 더 좋은 결실을 보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3분기 주요 이슈들도 함께 짚어 보았습니다. '수출바우처 사업 선정', 절강법인 '안전생산허가증' 취득 등 지난 분기 동안의 노고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결과들이 공유되었습니다. 신규 입사한 직원과 정식으로 인사하는 시간도 가졌구요!! (사진 속 인물이 궁금하시다면 지난 호 (18호) 확인해 보기!!!) 다음으로는 타운홀 미팅의 핵심 이죠! 임직원분들의 건의 사항이나, 궁금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 · · · ORCHEM VN 인재 육성 프로그램

인터뷰/글. 사내 기자단 Phùng Thị Thanh Nhàn 사원 (베트남법인)

ORCHEM VN는 교육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발전이 곧 회사의 발전이라 믿기에, 2025년 직원들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본사 전문 직무 교육

구매, R&D, 회계, 인사 등 본사의 교육 지원을 통해 업무 표준화 및 시스템 실행 능력을 향상했습니다. 26년에도 학습·성장 문화를 강화하고 셀프 리더십 및 핵심가치 실천 역량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프트 스킬 교육

현지 직원 및 주재원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소프트 스킬 향상 교육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피드백 기술, 스트레스 관리 등을 주제로 의식변화 및 핵심 역량 향상에 집중했습니다.



제 2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11월 29일, ORCHEM VN에서 제2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직원들이 한국어 실력을 교류하고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총 11명의 참가자가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철저한 준비와 열정으로 수준 높은 발표를 보여주었고, 대회를 통해 직원들의 성장 의지와 학습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2025년 12월, 팀장, 파트장 및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총 3회차 진행, 2026년에는 4차, 5차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절강법인의 활력소!!
직원 식당/카페 Renewal Open

글/사진. 사내 기자단 莫秋玉 Mo qiu yu 사원 (중국법인)

2025년 하순, 새로 오픈한 절강법인 식당과
카페를 소개합니다!!



식당

현대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로 새 단장
따뜻한 톤으로 맞춰진 식탁과 의자는 심플
하지만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각 테이블은
동료 간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할 수
있도록 4인석으로 준비했는데요, 전체적
으로 밝고 깔끔하게 구성하여 임직원들이
식사하는 동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
습니다. 구성원분들이 소통과 휴식의 공간
으로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또한
식당에는 고화질 LCD TV가 설치되어 있어
요. 식사 시간 동안 뉴스나 가벼운 음악
또는 스포츠를 중계하여 직원들에게 심리
적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임직원
들이 점심시간을 하루 중 진정한 휴식,
재충전의 시간으로 여길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다양한 선택지

배급 방식을 뷔페식으로 선택하여 직원들이 자신의 입맛과
식사량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다양한 메뉴와 신선한 과일, 수프 등 상시 메뉴를
비치하여 직원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업무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세련되고 편안한 환경

식당 바로 옆에는 임직원들에게 영감을 주는 특별한 분위기의
카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카페는 싱그러운 식물로 포인트를
주어, 자연의 생기와 편안함을 느끼게 했어요. 공간은
전체적으로 개방감 있게 설계했으며, 편안한 소파 세트와
세련된 하이 테이블을 갖추고 있어,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팀 회의를 할 때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 . .

편리한 서비스

카페의 핵심은 고품질의 커피
머신이에요, 간단한 조작만으로
전문점 못지 않은 진한 향의 커피
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
고와 정수기 등을 마련해 직원
들에게 시원한 음료와 차 등을
마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층 더 깔끔하고 편안해진 휴게 공간이에요.
곳곳에서 임직원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가 엿보입니다.
임직원들의 회사 생활에 좋은 활력소가 되길 바랍니다!

2026 오늘케임 새해 목표

인터뷰/글. 사내 기자단 김시연 연구원

2026년에는 연구소와 영업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이 힘을 모아 최종 목표인 PS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임직원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CTO 조동현 전무이사-

건강을 위해 술 줄이고, 로또 1등 당첨!!!

-환경안전팀 공진호 선임-

저만의 26년도 새해목표를 생각을 해봤을때, 스스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여 26년 목표는 '관리하기'로 설정했습니다.

월급 관리 계획을 세워 소비 지키기!

-연구소 김용우 연구원-

어느 날 인터넷에서 어떤 유명 아이돌 중 한 분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위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리스트 10가지를 적다보면 목표 달성을 하기 쉬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감명깊어 저도 따라해봤는데,

① 목표 : 관리하기 → ② 주 4회 운동하기



④ 친구 관계
소홀히 하기 ← ③ 저녁 약속
줄이기



⑤ 친구와
연락하지 않기 → ⑥ 카톡/인스타
하지 않기



⑧ 스마트폰 팔기 ← ⑦ 스마트폰
하지 않기



⑨ 당근 마켓에
내 폰 등록하기 → ⑩ 내 폰 사진찍기



위처럼 저는 저의 26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 폰 사진 찍기부터 행해 나가겠습니다 ㅠㅠ 오늘케임 임직원 여러분들도 다들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26년 붉은말의 해가 되셨음 좋겠습니다!

-전사기획팀 전웅빈 선임-

제 새해 목표는 건강해지기입니다. 거창한 계획은 없지만 일상 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카페인 줄이기입니다. 피곤한 날에는 세 잔 씩도 먹곤하는데 2026년부터는 하루에 한 잔 씩 마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가 하루에 두 번 이상 커피를 사는 모습을 보신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회계팀 안소희 사원-

VN R&D Center 활성화!

-VN R&D Center 안현규 선임연구원-

5kg 감량하기!

-연구소 박연수 연구원-

풋살♪ ‘동호회’

모집 중!!

Q. 풋살 동호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풋살은 유산소도 함께 할 수 있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단체 운동이고 Team 스포츠이다 보니 같이 운동하다 보면 유대감도 생기고, 서로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아요. 한 달에 1~2회 정도 활동하고 있고, 12~16분이 참석해 주십니다. 팀도 매번 다르게 하니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편하게 연락 주세요!

Q. 풋살 동호회만의 매력은? !?

사내 풋살장이 생기기 전에는 풋살장 예약도 해야 하고, 풋살장까지 이동해야 하다 보니 참석률도 적었어요. 그런데 풋살장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별다른 번거로움 없이 편하게 풋살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대화할 기회가 적은 직원과 친해질 기회도 생겨서 업무에서도 편할 때가 있습니다.

Q. 회사 사람들과 운동하면서 생긴 좋은 점이 있나요?

제가 낯가림이 진짜 심한 편이어서 웬만하면 회사에서 대화를 잘 안 해요. 그런데 동호회원분들은 마주치면 안부도 잘 물게 되고, 업무적으로 대화할 때도 어렵지 않아요. 특히 정원일 수석님과 지성배 수석님 또 노윤석 수석님과는 대화할 기회가 적었는데, 풋살하면서 많이 친해지고 대화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풋살장이 생기고 나서는 제조센터 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Q. 최근에 유니폼을 맞추셨는데, 소개해 주세요!

우선 유니폼에 핑크색이 들어가는데, 색깔과 디자인은 의견을 받고 투표로 정했습니다. 핑크가 생각보다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핑크색이 들어갔고, 유니폼 엠블럼은 오몽이에요. 엄청 잘 어울려요. 사진은 아직 다 같이 입고 찍은 게 없어서,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Q. 책임님이 손꼽는 풋살 에이스가 있을까요?

저희 동호회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잘하십니다. 다들 운동도 좋아하시고, 체력도 좋으세요. 그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공진호 선임님이 제일 잘 하시는 거 같아요. 풋살도 꾸준히 하시고, 회사 동호회 말고도 사회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풋살은 보통 5~6명이 하다 보니 위치가 없는데, 공진호 선임님은 공격, 수비도 잘하시고, 제일 많이 뛰세요. 저희 팀의 에이스입니다.

그리고 분위기 메이커로는 주용기 기사님이 있습니다. 제일 활발하시고, 유니폼이야기도 제일 주도적으로 꺼내주셨어요, 덕분에 이번 기회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Q. 경기 중에 재밌던 에피소드나 가장 기억에 남는 골이 있을까요?

풋살 경기는 워낙 골이 많이 나와서 기억에 남는 골 장면은 없지만, 사내 풋살장이 처음 오픈한 날과 이번에 유니폼 맞추고 처음 경기한 날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참고로 저희 동호회는 승패보다는 운동이나 친목 목적으로 운동해서 부상은 많지 않아요.

Q. 풋살 동호회 홍보를 위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 풋살 동호회는 사내 풋살장을 사용할 수 있고,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경기 당일에 오셔도 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풋살 동호회는 술 회식이 거의 없습니다. 회장이 회식을 안 좋아하기도 하고요, 대신 종종 피자나 치킨처럼 배달할 수 있는 음식들 시켜서 먹곤 하니, 젊은 직원분들 매우 환영하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공채 12기분들도 편하게 생각하시고 풋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편한 마음으로 참석해 주세요!!

동호회 가입 및 관심 있는 분들은 풋살
동호회 회장 강형욱 책임님께
연락 주세요!!

... 2026 트렌드 코리아 키워드 10가지

글. 사내 기자단 최수진 연구원

1. 휴먼인더루프 (Human-in-the-loop) : 인간과 AI의 적절한 상호 협력

‘휴먼인더루프’는 인공지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인간이 적어도 한 번은 개입해야 한다는 AI 활용 철학을 말하는데요, 단순히 AI를 통제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AI가 각자의 강점을 통해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협업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2. 필코노미 (Oh my feelings! The feelconomy) : 기분 경제

감정을 의미하는 ‘필(feel)’과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인 ‘필코노미’. 소비자가 자신의 기분을 판별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지금 당신의 기분은 얼마인가요?

3. 제로클릭 (Results on Demand : Zero-click) : ‘검색하는 인간’에서 ‘제안하는 AI’로

디지털 생활 전반에서 클릭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제로클릭’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소비자가 ‘검색’하기 전에 AI가 먼저 ‘제안’을 통해 고민을 줄여주고 있는데요. 검색창 질문에 대한 AI의 요약 답변이나 쇼핑몰, 배달 앱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4. 레디코어 (Self-directed Preparation : Ready-core) : 미리 세운다, 사전 계획

‘준비된(Ready)’ 상태가 삶의 ‘핵심(Core)’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의미의 ‘레디코어’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는 신세대들은 삶을 미리 계획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정과 예약뿐 아니라 결혼과 출산, 육아와 노후까지 말이죠.

5. AX조직 (Efficient Organizations through AI Transformation) : AI 시대의 조직

과거 디지털 기술이 도입됐을 때 ‘디지털 전환’을 의미하는 DX가 있었다면, AX는 DX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AI에 기반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즉, ‘AX조직’이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일어나는 조직 운영의 대전환을 말하며, 격변하는 AI 시대에 맞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6. 픽셀라이프 (Pixelated Life) : 작고, 많고, 짧게 소비하는 트렌드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픽셀(Pixel)’처럼, 작고 많고 짧게 소비하는 방식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하나의 유행에 오랜 기간 머물지 않고, 빠르게 다음 트렌드로 이동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원하거든요!

7. 프라이스 디코딩 (Observant Consumers : Price Decoding) : 합리적인 가격인가?

‘decode’는 ‘해독하다’라는 뜻으로, 프라이스 디코딩이란 현대의 소비자들이 제품의 가격을 암호 해독하듯 풀어내는 행동을 말합니다. 브랜드가 제시하는 가격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구성 요소를 일일이 분석한 후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죠.

8. 건강지능 HQ (Widen your Health Intelligence) : 100세까지 건강하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탐색하여 자기 관리를 실천하는 역량을 ‘건강지능 HQ (Health Quotient)’라고 말하는데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더 오래도록 삶의 질을 확보해야 합니다.

9. 1.5가구 (Everyone Is an Island : the 1.5 Households) : 우리는 모두 연결된 섬

“혼자이지만 혼자이고 싶지 않아.” 개인의 침해 불가한 자율성을 ‘1’이라고 하면, 경제적·심리적·육체적 부담을 덜기 위한 선택적 연결감은 ‘0.5’라고 지칭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가구 형태인 ‘1.5가구’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 근본이즘 (Returning to the Fundamentals) : 변치 않는 ‘근본’의 가치

급변하고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소비자들이 변치 않는 고전적인 가치를 찾아 안정감을 추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AI가 모든 것을 생성하는 시대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근본’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죠. 요즘 클래식과 아날로그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가 많아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지인 PICK! 베트남 출장 시 꼭 먹어야 하는 과일

1탄

베트남은 열대기후, 비옥한 토지, 그리고 긴 해안선 덕분에 자연이 선물한 과일 천국입니다.
베트남으로 출장 오시는 임직원분들을 위해, 꼭 한 번은 맛봐야 할 제철 과일 지도를 공개합니다!

봄철 과일(2~4월)



[청껍질 자몽 (Bưởi da xanh)]

달콤함과 더불어 은은한 산미가 있어 매우 상큼합니다



[딸기 (Dâu tây)]

한국에서도 대중적인 과일이지만, 다랏 지방의 산딸기를 드시면 향과 맛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기획/글. 사내 기자단 Phùng Thị Thanh Nhàn 사원 (베트남법인)

*해당 이미지는 adobe AI를 활용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름철 과일(5~8월)



[리치 (Quả vải)]

과육이 두껍고 꿀처럼 달며, 수분이 가득합니다

[람부탄 & 망고스틴 (Chôm chôm & Măng cụt)]

청량하고 달아 누구나 먹기 쉽습니다



[두리안 (Sầu riêng)]

향은 강하지만 맛은 더 강합니다
맞는 분은 금방 빠지게 됩니다



망고 (Xoài)

완숙도 맛있지만, 살짝 덜 익었을 땐
아삭하고 새콤해 색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잭프루트 (Mít)]

두리안과 외형은 비슷하지만

향은 훨씬 부드럽고 달아 시도하기 쉬워요

운이 좋다면 베트남 법인에서 직접 드실 기회가 있을지도요!!

ORC Solution

취미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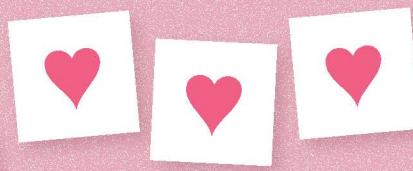
사진/글. 사내 기자단 김준용 기자 (ORC Solution)



안녕하세요 ORC솔루션 김준용 기자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복되는 업무와 일상에 지친 자신을 위해, 퇴근 후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로 하다면, 특별한 취미인 DIY 미니어처 하우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인내심 테스트 구간이 종종 생기긴 합니다. 부품이 워낙 작다 보니 손이 떨리기도 하고 손에 본드가 묻기도 하고, 끈적거리는 것들이 짜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아마 성격이 많이 급하신 분은 엎을 수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하다 보면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목과 어깨 부분이 뻐근해져요. 그러니 중간중간에 꼭 스트레칭해 줘야 됩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처음부터 제작 난도가 높은 큰 집을 제작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작은 부엌이나 작은 방 정도로 입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로 취미 생활과 집 안 인테리어까지 가능하니 추천해 드려요!!



DIY 미니어처



O!News

2025 4분기 오알켐 소식

- 10월 14일 4분기 타운홀 미팅
- 12월 2025 노사문화대상 '장관상' 수상
- 12월 3~5일 글로벌 전자회로 산업 전시회 'HPCA' 참석
- 12월 22일 2026 비전 드로잉
- 10월 28일 구미공장 ISO 45001:2018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구미공장이 ISO 45001:2018 인증을 받았습니다. ISO 45001:2018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근로자 및 조직의 안전을 국제 기준에 맞춰 보장하는 시스템에 대한 인증입니다.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구미 공장의 뜻깊은 결실에 박수를 보냅니다!

- ◆ 12월 23일 '배하필하모닉오케스트라' 송년 콘서트



오알케미 후원하는 오케스트라 ‘배하필하모닉’의 제16회 송년 콘서트가 12월 23일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열렸습니다. 크리스마스 테마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에서는 캐롤송, 영화 주제곡 등 한껏 연말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제77회 아슬리코 영 오페라 싱어즈 수상자분들의 공연이 이어지며 듣는 재미가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ORChestra 19호를 제대로 읽었는지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오알켐 사보 영역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하여 인사총무팀 김정아 선임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세요.

*정답자 중 4명을 추첨하여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립니다.

*모든 질문은 주관식입니다.

*모든 정답은 ORChestra 19호 안에 있습니다. 눈을 잘 떠 보세요.

1. 기술혁신팀의 신규 입사자 중 드럼이 취미인 연구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2. 오알켐이 2025년 노사문화대상에서 받은 상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3. HKPCA Show 2025는 중국 어디에서 개최되었나요?

4. ORCHEM VN가 25년도에 시행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 4가지는 무엇이 있었나요?

5. 환경안전팀 공진호 선임님의 26년도 새해 목표는 무엇인가요?

6. 풋살 동호회 회장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7. 26년도 트렌드 코리아 키워드 중, 디지털 생활 전반에서 클릭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지칭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8. 베트남 출장 시 꼭 먹어야 하는 봄철 과일 두가지는 무엇인가요?